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한 생명을 소중히, 한 영혼을 귀중히
- ◎ **연합부흥회:** 뉴질랜드 노회 주관 연합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18일 수요일에는 없습니다). 일시: 2014년 9월 18일 오후 7시30분 장소: 본당 강사: 노진걸 목사(해외한인 장로회 총회장, 홀러톤 장로교회 담임)
- ◎ **환영회:** 2014년 2/4분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는 9월 13일 (토)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 **수련회:** 2여선교회 수련회가 오는 9월 6일 (토) 오후 5시 187 Red Hills Rd Taupaki (09-832-0691)에서 있습니다.
- ◎ **봉사활동:** 9월 중 학생들 방학 때 공동체별, 선교별로 봉사활동(Outreach,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떠날 성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9월 27-10월 11일 사이 기간: 1박 2일 혹은 2박 3일 장소: 푸켓코헤 근교, 로토루아 근교 회비: 70불(개인, 1박 2일 기준)
- ◎ **교제:** 오늘 예배 후 교제는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연합으로 갖습니다.
- ◎ **기도회:** 내일은 9월을 시작하는 첫날로 월샛기도회가 있습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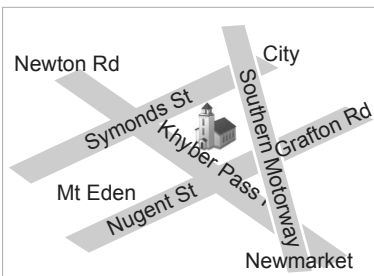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8월 31일 주일 16권 35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 두 주간, 한국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 인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일 것입니다.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그가 타는 소형차, 심지어는 침실 크기까지 사람이 아닌 무슨 신인양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또한 교황의 소탈 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황이 차를 멈추고 갓 돌을 넘긴 아기의 얼굴을 감싸고 볼에 입을 맞췄다.”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기위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이동수단으로 준비돼 있던 헬기 대신 KTX를 이용한 것을 두고 “기차를 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00 CC 소형차를 탔고 여덟 번이나 차를 멈춰 세우고 시민들과 진한 인사를 나누었고 방탄유리 없이 손잡이만 설치된 차를 이용하는 것은 “대중과 가까이 접촉하려는 그의 바램의 표현이다”며 과연 서민적인 교황이라고 극찬하며 언론들은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지켜세웠습니다.

저는 교황의 이런 행동을 폄하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언감생심 제가 무엇이라고 그 높은신(?) 분을 감히 비판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유감인 것은 교황의 말 한마디 한 마디, 하나하나의 행동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는 해도, 소탈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윤리요 도덕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그가 4박 5일간의 일정에서 강론이나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모 방송국에서 조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1위가 ‘사랑’으로 166번, 두번째는 ‘한국’으로 120회, 공동 3위는 ‘마음’과 ‘사람’으로 101 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 이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은 눈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전무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사람들은 교황의 언행에 열광하며 교황이 사회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자처럼 교황이 오면 저절로 평화가 오고 저절로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황의 인간미에 매료 될수 있겠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현실을 통찰 할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자를 위하는 언행으로 못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연민의 정을 느낄만 할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시편24:3-6
찬양대
다함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76. 요한복음 1장
사도신경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덕철 장로
사도행전 25:13-22
나무십자가 찬양대
예수라 하는 이/이태한목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이규임 권사
하박국 1:1-4
하박국의 질문 2/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준섭 형제

◎ 9월 교회악기

2여선교회 수련회: 9월 6일(토)
새가족 환영회: 9월 13일(토)
연합부흥회: 9월 18일(목)
성찬주일: 9월 28일(주일)

◎ 9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철재/김현주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선화 집사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이민우 형제
9월 10일 수요: 박후임 집사
9월 10일 애찬: 임병숙 권사
9월 14일 주일: 최광암 집사
9월 14일 청년부: 이에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성령충만으로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3.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도록.
4. 영육으로 연약함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이, 비자와 영주권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도록.

9월 새벽기도회 본문

- | | |
|-----------------|------------------------|
| 1일: 에스더 1:1-12 | 과시육이 모욕을 불러오다 |
| 5일: 에스더 3:1-15 | 비굴해질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
| 12일: 에스더 9:1-16 | 그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
| 19일: 에스라 4:1-10 | 유혹과 방해 속에서 믿음의 순수성 지키기 |
| 26일: 에스라 8:1-20 |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 가라 |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태국 심재우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태국에서의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주 소식을 드렸어야 했는데 단기 선교팀을 섬기고 나니 신애와 예준이가 눈병으로 고생을 했고, 낫자마자 제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그 탓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몸에 간지러운 것들이 나면서 붓고, 입술이 붓는 증상들이 생기면서 태국에서의 마무리를 아주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일단 9월 3일 밤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전에 기도편지에 드린 것과 같이 올해 12월까지로 첫 팀 사역은 마무리 되고, 내년 1월부터는 NIBCM 선교부의 본부 선교사로 두 번째 팀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정과 함께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와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본부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햇불 트리니티에서 영어과정으로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신애 자매도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다음 태국 사역을 위한 관련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저희 가정을 다른 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니 두려움 없이 또 한 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 사역을 잘 정리 및 마무리 하고, 살롬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2.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할 집과 필요한 물품들이 잘 마련되도록
3. 재우형제가 신대원 준비를 잘 하도록
4. 가족 모두가 한국에 다시 잘 재정착할 수 있도록